



왼쪽부터 시계 방향 '뜻밖의 Q' '놀라운 토요일' '전지적 참견시점' '아는형님'.

# 무한도전 빠진 예능계는 '춘추전국시대'

### '뜻밖의 Q'·'놀라운 토요일' 등 대체 예능 시청률 한 자릿수 대결 '전지적 참견시점' 복귀 ... '잔내투어' '아는 형님' 등과 화제성 견인 유재석·박명수·하하 등 '무도' 멤버들 뿔뿔이 흩어져 활동 활발

국내 예능을 대표했던 MBC TV '무한도전'이 떠난 지도 7일도 안 됐지만, 2006년부터 토요일 저녁 7시 30분 예능으로 활약했던 '무한도전'은 13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지난 3월 31일 종영했으며, 이후 3회에 걸쳐 '13년의 토요일'이라는 특집이 방송됐다.

시즌2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긴 했지만 '무한도전'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크다.

◇ 동시간대 시청률 한자릿수 싸움... 화제성 급락 '무한도전'이 떠난 후 토요일 저녁 예능은 화제성도 시청률도 잃은 채 춘추전국시대가 됐다.

현재 MBC TV는 '무한도전'이 방송되던 시간대를 '뜻밖의 Q'가 채우고 있지만, 시청률이 3%대에 머물러 '무한도전'과 비교하면 3분의 1 토막이 났다.

동시간대 KBS 2TV '불후의 명곡', SBS TV '백년송'이 때때로 9% 정도를 찍으며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2049(20~49세) 시청자층에서 화제성이 높은 프로그램은 아니어서, '무한도전'이 떠난 뒤 토요일 저녁 예능 자체가 침체된 분위기다.

tvN에서 오후 7시 40분에 시작하는 음악 퀴즈쇼 '놀라운 토요일'도 시청률이 1%대에 머물러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놀라운 토요일'을 연출하는 이태경 PD는 앞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단 토요일 저녁 시간대가 복귀하는 상권이 돼야 경쟁도 의미가 있다. 현재는 서로 서로 잘돼야 한다"고 말했다.

저녁 예능들이 부진한 사이 토요일 '상권'은 밤 시간대로 넘어간 분위기다.

최근 돌아온 MBC TV '전지적 참견 시점'은 밤 11시 5분, 늦은 시간에 방송을 시작함에도 7%대 시청률을 기록하며 저력을 과시했다.

방송가 한 관계자는 "전지적 참견 시점의 복귀로 토요일 밤이 오히려 살아나는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이밖에 오후 9시 시작하는 JTBC '아는 형님', 오후 10시 30분 방송하는 tvN '잔내투어' 등이 꾸준히 화제성을 견인하며 토요일 밤 웃음을 책임지고 있다.

◇ 멤버들 각자 도생... 시즌2 가능성 있을까 '무한도전'과 젊음을 함께한 유재석, 박명수, 정준하, 하하를 비롯해 뒤늦게 합류해 활약하다 아쉽게 떠난 양세형, 조세호, 그리고 과거에 함께했던 정형돈, 노홍철 등은 뿔뿔이 흩어졌다.

'국민 MC' 유재석은 '무한도전' 종영 후 오래 해

은 SBS TV '런닝맨'과 KBS 2TV '해피투게더3'를 계속 끌어가면서 넷플릭스의 첫 국내 예능 '범인은 바로 너!'에 참여하는 등 새로운 실험과 도전을 하고 있다.

박명수는 tvN '잔내투어'와 TV조선 '아내의 맛', tvN '오늘 내일' 등 케이블과 종합편성채널을 위주로 활동 중이며, 정준하는 올리브 '원나잇 푸드트립: 언리미티드', K STAR '식신로드' 등 먹방(먹는 방송)에 주력하고 있다. 하하는 '빅픽처' 등 웹예능에 도전했다.

원년 멤버들보다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건 양세형, 조세호다. 특히 '무한도전'에서 힘을 받은 양세형은 SBS TV '집사부일체'를 비롯해 MBC TV '전지적 참견 시점'과 '할머니네 똥강아지', tvN '선다방' 등 지상파와 비지상파를 넘나들며 많은 프로그램에서 활약 중이다. 조세호 역시 KBS 2TV '거기거 어딘데??'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을 한 자리에서 '완전체'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은 여전히 '무한도전' 팬들의 마음을 허전하게 한다.

'무한도전의 선장' 김태호 PD는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 "무한도전이 돌아온다면 '마블' 같은 세계관이 될 것"이라며 시즌2의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시즌2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 된다면 언제가 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PD는 지난 5월 말 미국으로 떠나 연수 중이다.

# 김은숙 작가 '미스터 션샤인', '도깨비' 인기 이을까

### 첫회 시청률 8.9% 쾌조 화려한 영상미·OST 눈길



김은숙 작가의 신작 tvN 주말극 '미스터 션샤인' (샤인)이 8.9%의 시청률로 쾌조의 스타트를 끊었다.

8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방송한 '미스터 션샤인' 첫회 평균 시청률은 8.9% (유료가구), 순간 최고 시청률은 10.6%를 기록했다. 김은숙 작가의 전작이자 케이블 채널 시청률의 역사를 새로 썼던 '도깨비' 1화의 시청률은 6.3%였다.

첫회에서는 조선에서 노비로 살다 미국으로 건너가 군인이 된 유진 초이(이병헌 분)와 의병 활동을 하던 부부가 죽은 후 할아버지 집으로 온 사대부 영애 고애신(김태리) 등 주요 인물들의 소개와 함께 기본적인 서사가 그려졌다.

드라마는 첫회부터 전·후 CM을 제외하고 1시간 14분 동안 방송했다. 시대극이라 간접광고(PPL)가 어려웠던 영향인지, 중간광고가 상대적으로 잦았다.

전날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영화를 보는 듯 화려하고 장대한 영상미였다.

수백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됐다는 소문답게 신미양요가 일어났던 1870년대 무렵의 지역 공간, 의상, 지도와 국기 등 각종 소품 등이 꼼꼼하게 재현됐고 특히 전투 장면에서는 압도적인 스케일을 자랑했다. 유진 초이가 안갯속에서 걸어 오는 장면 등 '도깨비'를 연상케 하는 장면들에서는 위트도 느껴졌다.

엔딩을 장식한 박효신의 곡을 비롯해 제작적소에 쓰인 OST(오리지널사운드트랙)가 극의 몰입도를 높였다.

# '역시 마블'... '엔트맨과 와스프' 200만명 돌파

### '탐정2'는 300만명 넘어



마블 영화 '엔트맨과 와스프' (엔트맨2) (샤인)가 개봉 5일 만에 200만 명을 돌파했다.

8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엔트맨2'는 이날 오전 누적 관객 수 217만8235명을 기록했다.

마블 영화는 지난 10년간 '아이언맨'부터 '어벤저스: 인피니티 워'까지 총 19편이 9500만 명을 동원했다. '엔트맨2'가 500만 명 이상을 동원하면 마블영화는 누적 관객 1억 명을 돌파하게 된다.

'엔트맨2'는 '시빌 워' 사건 이후 히어로와 가장의 역할 사이에서 갈등하는 엔트맨과 새로운 파트너 와스프의 예측불허 미션과 활약을 담았다.

권상우·성동일 주연의 '탐정:리턴즈' (탐정2)는 지난 7일 기준 총 관객 3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올해 개봉한 코미디 영화 '조선명탐정: 흡혈괴마의 비밀', '바람 바람 바람' 등을 모두

넘어선 수치다.

'탐정2'는 지난달 13일 개봉 이후 신작들의 공세에도 박스오피스 4위권을 유지하며 한 달째 장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 TV프로그램

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 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중 MBC 뉴스투데이 50 비밀과 거짓말(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살맛나는 세상	35 닥터 365 40 나도 엄마야
9	30 KBS 뉴스	00 파도야 파도야 40 여유 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검법남녀 (재)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UHD 명품역사관 정비록(재) 50 UHD 숨터(재)	00 너도 인간이니?(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검법남녀 (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열린공간 토크Talk
1	0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50 연중기획 -빛고를 행복아카데미	2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0 최충우돌 만국 유랑기 스페셜	55 닥터 365
2	50 콘서트 필(재)	00 KBS 뉴스타임 10 영화가 좋다(재)	25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재)	00 뉴스브리핑
3	40 공감다큐, 사람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사이닝스타 50 뽀뽀뽀 모두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여유만만(재) 55 살림하는 남자들(재)	20 비밀과 거짓말(재)	00 토크 콘서트 화통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5 MBC 뉴스 2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UHD 한식의 마음 (재)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0 생방송 빛날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7	00 KBS 뉴스 7 35 우리말 겨루기	50 인형의 집	15 비밀과 거짓말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10 생방송 TV블로그 품지락
8	25 내일도 맑음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최충우돌 만국 유랑기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 9			
10	00 가요무대	00 너도 인간이니?	00 검법남녀	00 기쁜진 멜로
11	00 KBS 뉴스라인 40 다큐세상	10 안녕하세요	10 가요베스트	10 동상이몽2 너는 내연명 1~2부
12	30 이웃집 찰스	35 사랑의 가족 (재)	10 UHD 특선 다크 바닷속 신비의 세계	30 나이트 라인

##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가자방과 김치 비법극수)	16:45 덩동등 유치원1~2(재)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중국 비경 서해객유람기 루산>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15 마사와 곰
06:00 한국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7:30 띠띠뽀 띠띠뽀
06:20 세계테마기행	12:10 극한직업 스페셜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
07: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3:00 다큐 오늘	19:00 몬카트
07:30 띠띠뽀 띠띠뽀	13:10 글로벌 가족정착기 한국에 산다	19:30 EBS 뉴스
08:00 덩동등 유치원1~2	13:40 배워서 남줄람(재)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08:30 몬카트(재)	14:30 몬카트(재)	20:40 세계테마기행 <중국한시기행9 황하(黃河)2 1부>
08:45 방귀대장 뽀뽀로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21:30 한국기행 <슬기로운 여름생활 청학동으로 놀러 오실래요?>
09:00 뽀뽀로로 뽀로로	15:15 파프리카	21:50 EBS 다크프라이
09:15 뽀로로와 노래해요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22:45 메디컬 다크-7요일
09:30 우리는 비트몬스터	15:45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23:55 배워서 남줄람(재)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스페셜	16:15 똑딱맨	
10:30 한국기행(재)	16:30 방귀대장 뽀뽀(재)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子	36년생 철저히 살핀다면 방안이 보일 것이다. 48년생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생산적이다. 60년생 제3자의 충고를 명심하자. 72년생 약담 끝은 없어도 덕담 끝은 있느니라. 84년생 양자 사이를 잘 조율할 필요가 있겠다. 행운의 숫자 : 58, 33	午	42년생 주관적인 판단은 소모적이다. 54년생 예감이 잘못 떨어지는 하루가 될 것이다. 66년생 순리대로 풀어나간다면 결과가 좋으리라. 78년생 주변의 위상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판도이다. 90년생 길조가 싹트리라. 행운의 숫자 : 92, 95
丑	37년생 보완에 만전을 기해야만 할 것이다. 49년생 안정적인 구도로 가는 것이 지혜롭다. 61년생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당분간 견뎌내자. 73년생 그림의 띄어쓰기 치지할 수가 없을 것이다. 85년생 희망해 왔던 바대로 적적 맞아 떨어지게 된다. 행운의 숫자 : 76, 98	未	43년생 양호한 결과로 이끈다. 55년생 취약점을 보완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니라. 67년생 조건을 날달이 고려한다면 중을 파악할 수 있다. 79년생 파격적인 방도로 전환해 보는 것도 괜찮다. 91년생 즉시 배제하는 것이 옳다. 행운의 숫자 : 74, 60
寅	38년생 인식하는 각도에 따라서 현저한 차이가 날 것이다. 50년생 윤곽이 잡히고 체계가 서게 되리라. 62년생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으면 될 것이니라. 74년생 주인공이 된다. 86년생 좋은 일이 있을 때 마도 많이 끼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43, 73	申	44년생 처음에는 난감할 것이나 점차 자리를 잡는다. 56년생 평상시의 기량을 발휘한다면 능히 해낼 것이다. 68년생 파격적인 변화가 온다. 80년생 살리가 따를 것이다. 92년생 마무리만 잘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행운의 숫자 : 33, 10
卯	39년생 아예 꿈도 꾸지 않는 것이 속 편하리라. 51년생 지금의 고통은 내일의 행복을 기약할 것이다. 63년생 대박으로 인해서 부가적 이익이 따르다. 75년생 바람이 튼실해야 진행에 차질이 없으리라. 87년생 아주 가까이에 와 있다. 행운의 숫자 : 95, 23	酉	45년생 생각에만 머무르면 아무런 슬프고 없느니라. 57년생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다. 69년생 성숙에 대비할 수 있는 삶의 지혜가 요구된다. 81년생 소홀히 한다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93년생 입장의 차이에 따른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행운의 숫자 : 27, 60
辰	40년생 절정에 이르게 된다. 52년생 잠신인 발상만이 진부함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64년생 유사하게 반복될 것 이니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76년생 정신 바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 대단히 혼란스럽겠다. 88년생 다소 생소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05, 43	戌	34년생 여러 가지 구별이 확연해지리라. 46년생 단순한 비교는 착각을 일으키게 하느니라. 58년생 결정을 해야 할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70년생 강력한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82년생 복덕을 발생 시킬 수 있는 생각을 하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14, 55
巳	41년생 깔끔하게 마무리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성가시게 한다. 53년생 전례대로만 행하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 65년생 직접 다루어야 할 내용이다. 77년생 조금만 더 나아가면 목표에 이르게 될 것이다. 89년생 무난하게 진행 되리라. 행운의 숫자 : 32, 87	亥	35년생 우회하는 것이 낫다. 47년생 내키지 않으면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59년생 미뤄서는 안 될 일이니 서둘러 이행해야겠다. 71년생 가끔 있어 있는 그대로 인식하면 된다. 83년생 확실하게 구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행운의 숫자 : 71, 06